

민주 당권 2파전... 정청래·박찬대 '친명 선명성' 경쟁

박찬대, 공식 출사표... "이재명-박찬대 원팀으로 과제 완수" 8월 2일 전당대회... "정청래와 정치적 동지" 분열 우려 불식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4선의 정청래 의원이 한발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3선의 박찬대 의원이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난 모습이다.

두 후보는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고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이고,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라며 "이미 검증된 이재명-박찬대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재부가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일찌감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만남)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라며 "정치를 한 20년 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랑 일했던 시기가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이 대통령과 단결 조합임을 부각하며 출사표를 던진 만큼 향후 당권 레이스는 이들 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한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을 실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으며, 특히 야당의 공격이 집중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곧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정 의원)",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응원한다(박 의원)"며 적극적인 방어막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국회 상임위 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고,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아예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계가 주축을 이룬 권리당원들 역시 수백명 규모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온라인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이미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쟁이 과열하면 향후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대표 후보들도 네거티브를 자제해 달라고 직접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발 이리저리 말하지"며 '민주당은 원팀'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와 저는 정치적 동지고, 서로에게 기댈 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는 친구이기에 이런 결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일부 그런 (비난) 목소리가 있다고 해도 총체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 대표 등의 임기는 내년 8월 까지다. 임기 중 사퇴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채우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국가 주도 섬 지역 생필품·택배·우편 지원

서삼석, 경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가 주도로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유통도·혁신도 등 국토외곽 면적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착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자원방안도 미비해 법정부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육지보다 평균 5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종석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검증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

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대북관 등을 문제 삼았다.

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한차례 불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등 중동 사태 격화와 북한의 러시아가 추가 파병 등 대외 안보 여건을 고려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수장을 오래 공백으로 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을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신성범 정보위 원장과 이성권 간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큰 결단을 해줬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이르면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최근 중동 사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돌입

내일 출마예정자·당원 대상 설명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이 본격 준비에 나선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25일 당 소속 핵심당원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당원자격심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오후 4시 민주당 광주시당 당사 2층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출마예정자를 포함해 민주당 당원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입당·복당에 대한 신청자격, 절차

등의 내용과 당원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입당·복당원서 제출 시 주의사항 등의 안내도 이뤄진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시민의 입당을 원활하게 하고,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당원과의 접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